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16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4	' FC WOMEN'	1
강원도민일보	14	.	1
江原日報		[]	2
江原日報	21	2023	3
江原日報			3
강원도민일보		[] 70 ...	4
강원도민일보	19		5
江原日報	11	.	5
강원도민일보	26		5
江原日報		[]2023	6
江原日報			7
강원도민일보		“ . ‘ , .	8
강원도민일보		“ . ‘ , .	9
강원도민일보		“ . ‘ ,	10
강원도민일보		“ . ‘ ,	11
강원도민일보	03	19	12
강원도민일보	09	' ,	12
江原日報	10	. 3 2	13
강원도민일보	19		13
강원도민일보	12		14
江原日報	10	.	14
江原日報	01	.	15
江原日報	02	.	15
江原日報	11		16
江原日報	12		16
강원도민일보	01	59.3cm ' ,	17
江原日報	02	道 “ ”	18

江原日報	18	[		]		‘	가	...	19
江原日報	19	[		]	.		가		20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24



강릉서 '강원FC WOMEN' 창단식 강릉시축구협회(대표 홍현창·단장 최순문)는 최근 세인트컨벤션에서 권혁열 도의장과 권영만 시체육회장 당선인, 도·시의원,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축구단인 '강원FC Women(U-12, U-15, u-18) 창단식'을 가졌다.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14



강릉명륜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강릉명륜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4일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노용호 국회의원, 황학수 전 국회의원, 김도영 명륜학원 이사장, 정광대 명륜고 교장, 최영철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 이수하 현 총동문회장, 오세인 직전 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1 15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



강릉소방서(서장: 심규삼)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강릉시 남항진동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왕래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홍귀자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취임하고, 최완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이우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이임했다.

江原日報

2023 01 16 ()
21



◇2023년 원주시 나눔봉사단(단장:서종성) 신년회가 지난 13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열려 유공자, 우수 단원, 봉사대상 등을 시상했다.

2023 원주시 나눔봉사단 신년회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23년 원주시 나눔봉사단(단장:서종성) 신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신년회는 신년사, 축하, 유공자 시상과 우수 단원, 봉사대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성숙 동양산업 대표와

이수현 삼우건설 대표에게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이 수여됐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 권혁열 도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송기현 국회의원, 지은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우영수 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2023 01 15 ()

江原日報

원주시 나눔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23년 원주시 나눔봉사단 신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신년회는 신년사, 축하, 유공자 시상과 우수 단원, 봉사대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성숙 동양산업 대표와 이수현 삼우건설 대표에게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이 수여됐다.

서종성 단장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신규 나눔리더 8명과 신규 착한가게 31곳을 발굴해 원주시 나눔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계식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해낸 원주시 나눔봉사단 서종성 단장님과 60여명의 단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승승장구 발전해 나가는 원주 봉사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권혁열 도의회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송기현 국회의원, 지은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우영수 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알립니다]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지역 발전전략-DMZ 포럼

데스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비무장지대 설치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은 2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지역 발전전략-DMZ 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한 강원대와 한림대, 서울대,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강원대 통일연구원 등 남북 및 동북아 분야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 주 관 : (사)강원행복시대

■ 후 원 : 강원도·강원도의회·강원도교육청

■ 기조연설 :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 세션 1.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접경지역

△주제 : 한반도 정세와 대응전략

△좌장 : 김인영 한림대 부총장

△발제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응전략'

△토론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정구연 강원대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세션 2. 접경지역의 실천적 발전전략

△주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접경지역의 실천적 발전전략 모색

△좌장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발제 : 송영훈 강원대 통일연구원장- '한반도평화와 접경지역 발전방안'

△토론 : 이영성 서울대 교수, 엄윤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지원특위위원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진행(Youtube 생중계)됩니다.

webmaster@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19



양구여성 신년인사회 2023년 양구여성 신년인사회가 지난 13일 양구 KCP호텔 연회장에서 서흥원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박귀남 군의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1 16 ()
11



횡성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횡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합동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횡성향교 웨딩홀에서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읍·면 남녀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26



도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간담회 강원도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회장 최현수)는 최근 춘천 퇴계꿈자람나눔터에서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 01 15 ()

[포토뉴스] 2023년 강원고성청년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2023년 강원고성청년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르네블루by위커히에 열려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이지영 도의원, 김성주 강원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38대 김윤식 회장이 이임하고 제39대 장길현 회장이 취임했다.

2023 01 15 ()

江原日報

다함께 행복한 횡성 만들기 앞장

횡성 2023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2023년 횡성지역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지난 13일 향교웨딩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횡성지역 사회복지인들이 다함께 행복한 횡성만들기에 앞장 설 것 을 다짐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석원)는 지난 13일 횡성향교웨딩홀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지역기관단체장 등 내빈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 사회복지종사자, 횡성행복나눔성금기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김명기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늘진 곳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 애써 달라 고 주문했다.

김영숙 군의장도 서로서로 온정을 모아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가는데 지역사회복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석원 협의회장은 지난해 횡성 복지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회복지인 모두 자랑스럽고, 신년 인사회가 복지 도시 횡성을 만드는 참다운 복지실현의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접경지역 경제·문화 발전 기회 ‘일석이조 기부제’ 많은 참여 기대”

이설화

출향민 등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인구소멸위기 지역 활성화 기여
타지역에 특산물 진출 ‘시장 개척’



▲ 지난 9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약속하고 있다. 김정호

새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강원도,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동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 이운식 재원영월군민회장

이운식 재원영월군민회장은 최근 영월군청을 방문, 최명서 영월군수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개인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사랑하는 내 고향 영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영월 상동읍 출신으로 원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홍천 출신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자신의 고향인 홍천과 접경지역 5곳(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각 1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기부했다. 최 원장은 “접경 지역이 경제·문화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곽일규 강원도 정책기획관

평창 출신 곽일규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은 최근 집무실에서 평창군과 강릉시에 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기부했다. 평창군은 곽 기획관의 고향, 강릉시는 배우자의 고향이다. 그는 “평창올림픽위원회 파견 당시에 사투리를 일부러 많이 쓸만큼 고향에 애정이 깊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기부제의 안착을 기원했다.



■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

춘천 출신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은 자신의 첫 근무지인 홍천과 장인·장모의 고향인 고성에 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기부했다. 최 국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이 기부 답례품으로 다른 지역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시장 개척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 유택희 도의회 의사관

춘천 출신 유택희 강원도의회 의사관은 접경지역 5개(영월·철원·화천·양구·고성)군에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그는 “작년 가을 화천과 철원 일대를 자전거 타며 돌아봤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병승 도의회 의정관

춘천 출신 이병승 강원도의회 의정관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5개 시·군(동해·강릉·철원·화천·양구)에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기부했다. 이 의정관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도영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

원주 출신 정도영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은 철원군 1회 기부자다. 정 지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뜻 깊은 기부로 주민 모두가 더 웃고 더 행복한 희망 철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 진범식 재경정선군민회장

진범식 재경정선군민회장은 고향 정선군에 기부했다. 진 회장은 “강원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향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됐다”며 “강원도 뿐만 아니라 고향 정선에 많은 분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울 송파구 거주 최선식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제 출신 최선식 씨는 인제군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자신의 고향이 남면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힌 최 씨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들에게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출향민들이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진교원·유주현·이재용·방기준·정승환·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03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 19일 출범

새 비전·특별법 개정안 주중 공개
이달 확정, 늦어도 내달 발의 계획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지원
하는 정부 지원위원회 출범과 새 비
전 및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주중에 모
두 공개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무총리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는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을 담은 새 비전과 특별법 개정안 초안
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할 국무총리 소

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
무지원위, 실무지원단 등은 19일부터
공식 운영된다. 장관급이 참여하는 첫
지원위는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
트홀에서 '강원특별법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갖고 개정안 초안을 공
개한다.

도는 각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개정
안 확정 후, 늦어도 2월에 도정차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특
별법 개정안에 도민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했다.

정승환

강원도민일보

2023 01 16 ()
09

서핑부터 방역 서비스까지 '강원사랑' 이색 선물 쏟아진다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강원도민회 중앙회·강원도·강원도민일보

답례품 품목 총 799개 '전국 2위'
속초·동해시, 서핑강습권 등 구성
세계산림엑스포 티켓 등 홍보효과
관광자원 활용 경제활성화 기대

새해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
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 선
정에 공을 들인 가운데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도 기부 동참을 이끌어 위한 이
색적인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영월군은 방역서비스를 준비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철 독감 유행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서비스
수요 증가에 주목한 상품이다. 버섯파
기체험, '영월관광택시', '영월애인웰
명파티' 등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답
례품도 마련했다. 특히 '물명', '불명'
등 MZ세대에서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떠오른 '명대리기' 프로그램을 답례품
으로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핑메카'로 떠오른 동해안권 지역
은 이와 연계한 답례품을 선보였다. 속
초·동해시는 서핑강습권 및 장비렌탈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구성해 '서핑족'
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 축제와 국제 행사를 연계한 답
례품도 나왔다. 강원도는 2023 강원세
계산림엑스포입장권을, 화천군은 산
전어축제 예약 낚시터 티켓을 내세우

며 기부금 유치와 더불어 홍보 효과까
지 더하고 있다.

도내 시·군농축수산물 등 지역 특
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자원 체험
에 중점을 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춘천시 남이섬 입장권·김유정레일바
이크, 강릉시 안반데기관광농원체험
권, 동해시 도깨비골스카이스이슬·무
릉별유전자체험시설 이용권, 속초시
세일요트 탑승권, 화천군 백암산케이
블카이용권 등 관계 인구 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과까지 염두에 둔 답
례품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전국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 30%
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일정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
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과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가능
하다.

15일 오전 기준, 고향사랑e음 포털
에 올라온 전국 지자체 답례품은 모두
5004개로 그중 도내 시·군 품목은 799
개 (15.9%)다. 강원도 답례품은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번째
로 많이 폭넓은 선택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지자체 이색답례품의 경우
전남 영암군 '전하장사와함께 하는 식
사데이트권', 공연장좌석에 이름을 새
기는 광주시 '네이밍 도네이션'과 '광
주출장차차서비스', 안양시 '안양
FC연간회원권' 등을 선보여 이목을 사
로잡고 있다.

김덕형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강릉시 안반데기관광농원 체험, 동해시 스카이 사이클 체험, 영월군 방역서비스, 강원도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답례품.

폭우·폭설에도 3일간 2만명 몰려

폭우와 폭설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홍천의 대표 겨울축제인 ‘홍천강 뽕뽕축제’에 3일간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지난 13일 홍천강변 일대에서 ‘제11회 홍천강 뽕뽕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15일까지 폭우와 폭설이 차례로 이어지며 얼음 낚시터 등 야외행사는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방문객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축제는 가족 낚시터 등 실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실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실내 프로그램 중심 운영 입장권 연일 매진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지난 13일 홍천강변 일대에서 ‘제11회 홍천강 뽕뽕축제’를 개막했다. 폭우와 폭설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3일간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낚시터, 체험 프로그램, 4D VR체험 등에 몰리며 실내 프로그램 입장권은 연일 매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군과 재단은 온

난화 현상에 대비한 안정적인 겨울축제 진행을 위해 메인 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를 축소 운영하기로 한 반면 부교낚시터, 루어낚시터, 가족

실내낚시터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주최 측은 행사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축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천강 뽕뽕축제는 설 연휴기간에도 개최되는 등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축제 초반 야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가족 실내낚시터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다”며 “행사 폐막까지 안전 확보에 힘쓰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천=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다시 불밝힌 화천산천어축제 선등거리 북적

우천 휴장 하루만에 운영 재개
야간 페스티벌 수천인파 몰려
DJ 공연·맥주 시음회 등 후끈

2023 화천산천어축제가 우천 휴장 하루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인 ‘선등거리 산천어클럽’도 다시 문을 열었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선등거리에서 야간 페스티벌을 재개하자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차없는 거리로 몰려들었다.

이날 페스티벌은 DJ 공연에서부터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지난 14일 밤 선등거리에서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 야간 페스티벌을 만끽하고 있다.

페스티벌 콘셉트인 ‘응답하라 선등거리’에 걸맞게 지금의 청년들이 젊음을 발산하던 나이트클럽이나 록 카페 등에서 인기를 끌던 음악들이

설새없이 울려 퍼졌다. 선등거리 한편에서는 무료 맥주 시음회를 비롯해 파크골프체험 이벤트 등이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 숙박업소를 예약 후 야간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상경기도 특수를 누렸다.

축제의밤을 화려하게 채우고있는 ‘차없는 거리’ 야간 페스티벌은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선등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보다 많은 분들이 화천에 머무르며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반도체 디자인 중심도시 실현 주목

강원대·한림대 기반구축 합심
인재 양성 통한 산업육성 전략
강릉·원주 '클러스터' 등 계획

춘천시가반도체 설계산업인칩리스(Chipless)와반도체 설계에유통까지 맡는 펌리스(Febless) 산업에 뛰어든다. 강원도가 원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에 나선 점을 감안,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을 맡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강원대·한림대와 손잡고 칩리스·펌리스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칩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펌리스는 설계에 유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별도의 공장이 필요없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춘천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춘천시는 춘천

이 반도체 디자인을 맡고 생산은 원주가, 포장과 물류는 강릉이 각각 담당하는 '강원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강원도와 논의하고 있다.

춘천시는 인재양성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대가 물리학과를 반도체 물리학과로 변경해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에 나서는 데다 한림대역시나노융합스쿨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해당 인력이 지역에서 반도체 디자인 산업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디자인 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춘천이 반도체 디자인 중심도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는 육동한 시장의 핵심 시정정책인 최고의 교육도시와 첨단 지식 산업도시 구현과도 맞아 떨어진다.

더욱이 이 같은 방안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강원도 산업 생태계 변화와 대학의 역할' 심포지엄

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해당 포럼에서 기초강연을 통해 춘천에 펌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AI·SW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주는 반도체 생산과 제조를 맡는 '강원형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여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튿날부터 담당부

서에 반도체 디자인 산업 준비를 지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 디자인의 경우 이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반도체 디자인 산업이 춘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江原日報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속도

춘천시·교육당국 MOU 중투 통과 이후 행정절차 단축

【춘천】속보=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본보 2022년 10월5일자 10면, 11월29일자 4면 등 보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온의·삼천지구가 지역구인 정경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교육 당국에 확인한 결과 당초 춘천시가 제안했던 부지인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인근 사유지로 가닥을 잡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

변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시도 사유지로 부지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강원도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행정절차 검토를 마쳤다. 당초대로라면 시가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 등을 거친 뒤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의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

는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과 춘천시가 먼저 MOU를 체결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육동한 시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도교

육청과 춘천시교육지원청 관계자, 춘천시 관계자, 정경옥 춘천시의원 등은 사유지인 시립청소년도서관 인근의 온의동 산43-3번지 1만3,000여㎡의 부지를 돌려봤다.

시 관계자는 "속초시 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시와 교육 당국 간 MOU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된 사례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에서 학교 부지를 사유지로 최종 확정하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江原日報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콘텐츠화 첫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즌2
‘이제는 활용이다’

속보=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콘텐츠화 작업(본보 2022년 12월28일자 2면 보도)이 본격화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올 1분기 내로 환수위의 법인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직의 명칭을 가칭 ‘사단법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위원회(이하 선양위)’로 변경, 실록과 의궤의 문화·관광콘텐츠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환수위’ 1분기 중 법인화 마무리
조직 명칭 가칭 ‘선양위’로 변경
‘세조 강원도 순행’ 재현 첫 사업

향후 설립되는 선양위는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의 ‘환지본처(還至本處·제자리로 돌아감)’를 주도적으로 이끈 월정사와 강원일보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환수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원도와 평창군은 물론 학계와 축제·이벤트 전문가, 문화·IT 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자문 위원단을 꾸려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가 다른 사고본들과 달리 유일하게 일제에 의해 약탈됐고, 일부 멸실된 후에도 대대적인 환수운동을 통해 환

국했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강원도가 중심이 된 또 다른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귀향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 등 드라마틱한 서사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충북 청주시가 ‘직지심체요절’을 활용해 매년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는 직지문화제나 전북 전주시가 ‘조선왕조실록’을 포쇄(曝曬·주요 문서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것)하는 장면을 재현한 특화된 콘텐츠의 실행 방안과 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오석기기자 sgttoh@kwnews.co.kr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01 16 ()

02

오대산사고본 콘텐츠화 첫발

-1면에서 계속

환수위는 청주시와 전주시가 생산하는 기록문화 관련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직지와 실록(전주사고본)의 경우 소장처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원 부산기록관 등으로 지역이 다른 데 반해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는 원래의 자리인 평창에서 소장처와 활용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양위 전환과 함께 진행하게 될 첫 번째 사업은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 38권)에 기록돼 있는 1466년 세조의 강원도 순행(巡行·여러 곳으로 돌아다님) 여가행렬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다.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세조의 강원도 순행 흔적을 따라 실록에 기록된 상서(祥瑞·경사롭고 길한 징조)로운 사건들과 에피소드를 각종 퍼포먼스와 대회 등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江原日報

2023 01 16 ()

11

강원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CES 등 국제 전시회 참가

【원주】올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강원 의료기기산업계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힘을 모은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재단)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 처음 참가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회(CTA)가 올해 디지털헬스 분야를 신설하면서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살피고 지역 의료기기업체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다.

재단은 올해 CES에서의 디지털헬스 분야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 의료기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두바이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마련되는 아랍헬스(Arab Health)에 강원공동관을 설치하고 중동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랍헬스는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 세계 3,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올 3월 중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3)도 해외 시장 공략의 호기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21~23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9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3)’를 역대급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해

외 바이어 초청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재단은 최근 중국 선전시 용화구 과학혁신국과 의료기기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정을 맺고,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구 500만명의 선전시 용화구의 역점사업인 연세(중한)바이오헬스 의료과학산업단지 건설에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광수 재단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국 의료과학기술 산업 매칭 플랫폼 조성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수출협력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1 16 ()

12

강릉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작

오늘부터 기업경영정책자금 지원 신청 접수

【강릉】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의 신선했던 강릉시가 새해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3년 강릉시 기업경영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자금 지원 규모는 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100억원 등 총 400억원으로 융자추천액은 업종별로 1억~5억원 한도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업경영정책자금은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면 대출이자 2.5~3.0%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강릉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점포 환경 개선 지원 △온라인마케팅 사업 지원 △전통시장(중앙·성남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동해안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진 15일 속초 도심 도로에서 시민들과 차량 모두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속초지역은 이틀간 15.9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원진 객원기자

최대 59.3cm 폭설 '아수라장'

주말휴일 영동·산간 눈 폭탄
미시령 옛길·배후령 등 통제
양양·원주공항 항공편 결항
오늘까지 눈, 한파주의보까지

강원도 전역으로 기록적인 눈이 쏟아진 가운데 대설경보가 발령중인 영동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강원도내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미시령 59.3cm, 향로봉 53.5cm, 진부령 37.9cm, 양양(오색) 25.4cm, 고성(현내) 22.3cm, 강릉(왕산) 19.1cm, 양양 16.9cm, 속초 15.9cm, 태백 12.3cm 등으로 기록됐다.

산간지역과 영동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으며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군도 8호선과 11호선에 대한 통행을 이날 오전부터 통제됐다. 설악산 진입 구간인 묵우재 도로와 춘천 사북면 말고개, 배후령, 세밀고개 등 3곳의 도로도 우회조치됐다. 태백산 22곳과 설악산 17곳, 치악산 12곳, 오대산 4곳 등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제한됐다.

고립이 우려되는 도내 65개 마을 553가구(937명)에 대해서는 제설장비와 구호물자를 사전 제공했다. 교육당국은 태백 2곳(통리초병설, 동점초병설), 고성 1곳(거성초병설) 유치원을 휴원하기로 하고 경동대부속유치원(속초·양양)은 자율등원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교통경찰 등 가용병력 200여명과 순찰차량 55대를 동원해 고속도로진·출입로 등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동해선 양양부근 10km구간과 서울양양선 춘천부근 10km, 영동선 횡성부근과 평창

부근 각 10km, 20km구간에 진입한 차량들을 우회 조치했다.

기록적인 폭설에 항공편들도 줄줄이 결항됐다. 플라이강원은 이날 양양~제주, 양양~여수, 양양~나리타를 잇는 8편의 항공운항편 결항확정을 이용객들에게 통보했다. 이날 오전에 출발 예정이던 원주~제주 항공편 4편의 운항 일정도 취소됐다.

당초 16일 아침까지 예보됐던 산간 지역 적설량은 최대 40cm에서 15cm 안팎으로 줄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중·북부와 산간 3~10cm, 영서와 영동남부가 1~5cm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도 전날보다 5도 이상 급감, 영서지역 6개 시·군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3~-5도, 영동 -4~0도로 예보됐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영동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긴 시간 이어지면서 시설물 피해와 차량 고립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분호·지역종합▶관련기사 5면

道 “플라이강원 더 이상 현금성 지원 없다”

화물터미널 인프라 확충은 지원
수익 다각화 등 체질 개선 주력

속보=강원도가 플라이강원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없다는 입장(본보 지난 10일자 2면 보도)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사업 다각화를 돕기 위해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및 항공 인프라 확충에 3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2026년까지 양양국 제공항 화물터미널 건립 등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소멸기금 267억원과 양양군비 40억원 등 총 30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사업비가 일부 투입됐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항공화물운송면허를 취득했으며 최근 도입한 중대형 항공기의 대만, 베트남 2년치 항공화물 운송 계약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화물운송을 통한 수익 다각화, 인프라 확충 등 체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주력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그러나 이전처럼 3년간 운항장려금·손실지원금 144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선 지급하는 등의 특별 대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올해 플라이강원의 운항장려금으로 예년의 5분의 1수준인 12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양양군청에서 면담할 계획이지만 강원도는 당장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보다는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와 달리 플라이강원 이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플라이강원이 양양을 떠날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강원도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은 도민 이용객 10% 할인 등의 주민 혜택이나 유튜브 등에 써 왔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플라이강원의 주식 중 4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주주가 타 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경영이 더 악화될 경우 모기지 이전, 매각 등의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여지는 남아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3 01 16 ()

18

데스크 칼럼 **대청봉**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루려면



허남운
원주취재팀장

道·원주시·본보 포럼 개최
서브주제 선정에 심혈
경제 구조 개선 필요 공감
:
기업 유치·인재양성 제언
행·재정 특례 발굴 절실
시·군 공동 문제의식 강조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600여년 강원 역사의 새 분수령이 되는 해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 단순히 명칭의 변경을 넘어 자치권을 확보해 새로운 지역 성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된다. 반면 허울 좋은 이름을 얻은 대신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 속에 자잘한 권한을 넘겨받아 사실상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앞선다. 지난 수년간 준비를 해 온 만큼,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해 12월27일로 시계를 돌려본다. 원주시와 강원도,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포럼이 열린 날이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라는 주제 설정은 수월했다. 다만 서브 주제를 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여야만 했다. 단순명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답아야 했기에..

고민 끝에 상생과 협력, 그리고 동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뇌리 속에 박혔다. 여기에 오랫동안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찍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 기초발제를 한 홍준현 중

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강원도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 인구 태부족 상황은 되레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타 지역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낫기에 앞으로는 인구 감소 등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이야기는 신선했다. 그렇기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실현하고, 경제적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 제시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각 지역에서 제시한 특례는 단순히 ‘특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을 건인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동력이 되는 의제가 돼야 한다.

“원주는 혁신·기업도시가 들어와 발전도 많이 됐지만, 혁신에 혁신이 없었고 기업도시에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없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주원 상지대 교수의 진단도 씁쓸아봐야 할 장면이다. 중견·대기업 유치가 적극 나서야 하고, 원주의 지향점을 내륙거점시대의 첨단 산업화와 중견·대기업의 육성생태환경 조성,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수도권 시대와 연

계 등에 뒤야 한다는 제언을 원주시가 바통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상영 강원도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장의 “행정 및 재정 특례와 사업 특례를 만들어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비전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다짐은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또 손준기 원주시의원이 제안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주민 참여 폭 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임을 일깨우는 부분이다.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성과는 시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장밋빛 미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도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일깨웠다는 것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했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규제로 묶인 것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해양생태 중심도시 강릉 등 18개 시·군 모두 공히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부지런히 살피고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6개월 남았다.

江原日報

2023 01 16 ()
/ 19

분권으로 지방소멸·고령화시대 헤쳐 나가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대한 지방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통일된 사회·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이 같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시에 따르도록 법률과 예산권으로 압박했다. 정당도 공천권으로 생활 정치를 하는 지방의

원을 움직였다.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거버넌스(행정)체제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예산과 권한, 자율권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천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방분권전국회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균형발전 실행 조속한 입법 및 로드맵 제시를 촉구한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5대 국정 청사진으로 제

시하고 ‘활기찬 지방’을 독립 의제로 다뤘다. 정부 출범 당시 천명했던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방시대’는 무수히 언급됐고 현 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과감한 권한 이양’과 같은 발언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뒤 해가 바뀌도록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

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아직도 온전히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

지방분권전국회의, 12일 국회에서 성명

“자치 발전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해결 못 해”

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될 수 없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저출생·고령화, 지역 격차와 같은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여야의 협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으로는 대학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자문기구 수준의 지방시대위원회로는 분권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가기 어렵다. 강력한 분권균형발전추진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대안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